사랑에 푹 빠지다

멜로 영화 전성시대

11월 개봉예정인 한석규·김지수 주연의 '사랑할 때 이야기 하는 것들'(사진 위)과 이병헌·수애의 '그해 여름'.

'가을엔 역시 멜로 영화'

정통적으로 가을 극장가는 아련한 사랑 이야기가 주인공이다. 특히 올 가을에는 이병헌·한석규 등 톱스타들이 오랜만에 멜로영화로 복귀,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또 '여자, 정혜' '로망스' 등을 통해 잔잔한 내면 연기를 선보였던 김지수는 두 편의 멜로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멜로 여왕'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 가을 멜로 영화의 서막을 연 작품은 강동원·이나영 주연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파이란'의 송해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공지영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최근 '너는 내 운명'(312만명)이 갖고 있던 한국 멜로 영화 흥행 기록을 깨트리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톱스타들 총출동 갖가지 사랑 이야기

'눈물 쏙~' 개성 따라 골라보는 재미

올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가을로'는 '번지 점프를 하다'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세심하게 포착했던 김대승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대사가 인상적이었던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이후 오랜만에 멜로 영화로 돌아온 유지태와 김지수가 주연을 맡은 '가을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찾는 작품이다.

담양 소쇄원과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 경주 남산 등 60여곳을 돌며 카메라에 담아낸 아름다운 풍경들이 영화 제목처럼 '가을로' 여행을 떠나게 만든다.

11월 말 개봉 예정인 '사랑할 때 이야기 하는 것들' 역시 기대되는 작품이다.

남을 치료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속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약사와 명품을 카피하면서 한번도 진짜는 가져보지 못한 짝퉁 디자이너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는 특히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 8년만에 '사랑' 이야기로 돌아온 한석규가 주연을 맡아 김지수와 호흡을 맞춘다.

한류 스타 이병헌 역시 가을 멜로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수애와 호흡을 맞춘 '그해 여름'은 1969년 여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다. 성공한 대학교수가 된 윤석영의 첫사랑을 찾아 떠난 TV교양프로그램 제작팀은 그곳에서 석영의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시골마을 수내리로 농촌 봉사활동을 내려왔던 대학생 석영과 수줍은 시골 여자 정인이 만들어 가는 수줍은 사랑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기대되는 작품이다. '품행제로'를 연출했던 조근식 감독 작품으로 '타짜'로 주가를 올린 유해진·오달수 등 특급 조연들이 참여했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국민 여동생' 문근영은 '사랑 따윈 필요 없어'로 팬들과 만난다. 2002년 일본 T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서 문근영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시각 장애인 역을 맡았다.

그녀가 사랑하게 되는 남자는 최상류층 여자들만을 상대로 낯뜨거운 대사를 날리며 돈을 뜯어내는 '호스트' 줄리앙으로 배우 김주혁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거룩한 계보 개성있는 블랙 유머로 유명한 '장진'감독과 조폭이 만났다. 피할 수 없는 두 남자의 싸움이 벌어진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DOA 전 세계 파이터들이 모여 승자를 가리는 DOA(dead or alive)가 열리는 도아 섬에서 미녀들의 화끈한 액션극이 펼쳐진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여수 헐리우드
폭력서클 우정과 청춘, 사랑을 두고 펼쳐지는 젊은이들의 리얼한 싸움을 담아냈다.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순천 롯데, 여수 헐리우드
월드트레이드센터 9·11테러를 소재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인간애를 엿볼 수 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광주·첨단), 순천 롯데
라디오 스타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과 박중훈, 안성기 두 배우가 빚어낸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타짜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등 화려한 출연진이 펼치는 화끈한 타짜(전문도박사를 가리키는 은어)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광주·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BB프로젝트 명절때마다 만나는 반가운 청룡(성룡)이 이번엔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다. 엉겹결에 인질범에서 보모로 변한 청룡의 치열한 코믹한 설정과 시원한 액션이 볼거리다. 12세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목포 롯데
가문의 부활 '가문 시리즈'가 돌아왔다. 가문의 위기의 '백호파'가 또 한번 코믹한 모습을 선보인다. 주인공들의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복고풍 의상도 웃음에 한몫 거든다. 15세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죽음을 앞둔 남자(강동원)와 자살을 세 번 시도한 여자(이나영)가 만나 교감을 나누게 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냈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하미,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목포 메가라인, 여수 헐리우드
금발의 초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메종 드 히미코' 로 인기를 얻은 이누도 잇신 감독의 2000년도 작품이다. 12세 관람가	광주극장

뻔한 '조폭영화' 아니지?

주목! 이 영화

'거룩한 계보'

'간첩 리철진' '길러들의 수다' '아는 여자' '박수칠 때 떠나라' 등 '장진표 영화'를 잇는 영화 '거룩한 계보'가 관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제나 재기발랄하고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었던 장진 감독과 '조폭'이라는 식상한 소재의 만남이 어떻게 영화에 담겼을지 궁금해하는 영화 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준호라는 다소 예외의 캐스팅도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장 감독 스스로 "내가 제작한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인 영화"라고 말할 만큼 영화는 누구나 부담없이 볼 수 있는 다소 '평범한' 이야기로 구성돼있다.

전라도 조직세계를 주름잡는 전설의 칼잡이 치성(정재영)은 조직을 위해 감옥에 들어간다. 조직은 치성에게 등을 돌리고 치성의 죽마고우인 주중(정준호)은 치성에 대한 연민과 조직원으로서의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치성은 복수를 위해 감옥동기들과 '거룩한 계보'라는 조직을 만들고 탈출에 성공한다.

두 남자의 진한 우정과 복수가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영화가 뻔한 '조폭 영화'가 아니라 '장진 영화'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세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영화계는 지금

만화가 허영만 잇따라 카메오 출연

만화가 허영만(사진 가운데)씨가 자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잇따라 카메오 출연했다.

허 씨는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타짜'에서 도박꾼으로 얼굴을 비친 데 이어 현재 촬영중인 '식객'에도 깜짝 출연했다.

허 씨는 영화 '식객'에서 주인공 성찬이 운영하는 칼국수 가게 손님으로 등장, "성찬? 진수성찬이네~"라는 대사를 연기했다.

김강우·임원희가 주연을 맡은 '식객'은 내년 1월 상영 예정이다.

이연희 이번엔 강동원 연인으로

현빈과 함께 '백만장자의 첫사랑'에 출연했던 배우 이연희(사진)가 이번에는 강동원의 연인이 됐다.

이연희는 최근 강동원과 이명세 감독이 두번째 호흡을 맞춘 'M'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역을 맡은 강동원이 찾아나서는 흐릿한 첫사랑의 연인 미미로 캐스팅됐다.